

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엽니다.

제10회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



2014. 10. 06.
경기도농업기술원

병해충 종합관리 요령

◆ 맥류종자소독

- 보급종이 아닌 종자는 1kg당 비타지람 분제 2.5g 기준으로 고루 묻혀 적기에 파종

◆ 파밤나방, 배추좀나방 등 나방류

- 배추 등 엽채류의 잎을 자세히 살펴보아 어린벌레 발생초기에 방제

월간 기상전망(10.6~11.2)

(수원기상대)

맑고 일교차가 큰 날이 많겠음

- 1주(10. 6~10.12) :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날 지속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
- 2주(10.13~10.19) : 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겠음.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며,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음
- 3주(10.20~10.26) : 고기압과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음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,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음
- 4주(10.27~11.2) :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며, 남쪽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오는곳이 있겠음. 기온은 평년보다 높거나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

경기도농업기술원은 맥류종자 및 마늘종구 소독, 시설채소 파밤나방, 담배 거세미나방, 배추좀나방, 총채벌레류, 아메리카잎굴파리, 진딧물, 과채류 목화 바둑명나방, 온실가루이에 대하여 10월중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하니 재배관리 및 적기방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 정보는 인터넷 <http://www.nongup.gg.go.kr>로 보실 수 있습니다 -

의문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(031-229-5863)이나 인근 농업기술센터로 전화해주세요

1. 맥류종자 및 마늘종구

㉠ 보리의 감부기병과 줄무늬병은 대부분 종자로 전염되어 이듬해 이삭이 팠 무렵 비가 자주 내리면 피해가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종자소독을 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어 보급종이 아닌 경우 보리종자에 약제를 고루 묻혀 적기에 파종

- 비타지람 분제 (2.5g/kg)

㉠ 씨마늘을 통해 여러가지 병해충이 전염될 수 있으며 특히 응애 등 해충에 대한 소독을 동시에 하는 것이 좋으니 가급적 마늘쪽 껍질을 완전히 벗겨내고 베노밀·티람 수화제(베노람, 큰나락)와 살비제인 피라클로포스 수화제(스타렉스, 세찬) 등으로 종구를 침지 후 파종



마늘종구

2. 채소류 파밤나방, 담배거세미나방, 배추좀나방

㉠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 애벌레는 크게 자라면 약제 저항성이 커져 방제효과가 많이 떨어짐

㉠ 김장배추 등 십자화과 채소를 비롯하여 시설재배지에서 파밤나방과 담배거세미나방, 배추좀나방 등이 잎살을 갉아먹는 피해를 주고 있으니 애벌레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정밀하게 방제하되 수확중에 있는 작물은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켜 안전농산물 생산



담배거세미나방

- 파밤나방+담배거세미나방+배추좀나방 : 애니충, 아바타스튜어트, 로드 등
- 파밤나방+담배거세미나방 : 알타코아, 명타자, 파발마, 세베로 등
- 파밤나방+배추좀나방 : 라이몬, 섹큐어, 슈퍼볼, 부메랑, 프레오, 림페이지, 하나로, 델리게이트 등

3. 시설채소 총채벌레류, 아메리카잎굴파리, 진딧물

☉ 총채벌레류는 1~2mm 정도의 작은 해충으로 채소류의 잎과 열매 그리고 화훼류의 꽃잎을 갉아먹으며 아메리카 잎굴파리는 채소류 잎속에서 굴을 만들면서 파먹고 진딧물은 엽채류에서 발생이 늘어나고 있음

☉ 특히 총채벌레류와 진딧물 등은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으로 방제가 소홀한 시설하우스를 중심으로 오이 모자이크바이러스(CMV)병,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(TSWV)병 등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

☉ 꽃노랑총채벌레는 꽃을 중심으로 아메리카잎굴파리와 진딧물은 잎뒷면 등을 자세히 살펴보아 밀도가 높거나 피해증상이 나타나면 적용약제를 바꿔가며 2~3회 방제



꽃노랑총채벌레

4. 과채류 목화바독명나방, 온실가루이

☉ 목화바독명나방 애벌레는 잎 뒷면에서 잎살만을 갉아 먹으며 겹껍질을 남기지만 성장하면 잎을 말고 그 속에서 잎줄기만 남기고 갉아먹으며 과실까지 피해를 줌

☉ 어린 잎 뒷면을 자세히 살펴보아 애벌레가 보이면 발생초기에 적용약제로 방제

- 심포니, 유토피아, 총채탄, 울가미, 질풍, 트레본 등



목화바독명나방

☉ 토마토, 오이 등에서 온실가루이가 기온이 내려감에 따라 시설하우스 등으로 이동하여 밀도가 늘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니 예찰을 철저히 하고 발생이 시작되는 시설재배지에서는 적용약제로 방제

- 빅카드, 격파, 음맥, 지존, 델리게이트, 세티스, 팬텀, 퀵버드, 히어로, 신기루, 오신, 대포 입제 등

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농사 후기관리

적 기 수 확

- 벼는 출수 후 적산온도가 1,100°C 정도 경과되었을 때 벼베기를 실시하는 것이 알맞음
 - 중생종벼(이삭팬 후 45 ~ 50일) : 9월 하순
 - 중만생종벼(이삭팬 후 50 ~ 55일) : 10월 상순

쓰러진 벼 관리대책

- 배수로 정비 및 고랑설치로 논물을 빨리 빼주고 뒤집기 하여 말림
 - 중생종벼는 서둘러 벼베기를 실시하고 중만생종벼는 싹이 나지 않도록 관리 후 적기 벼베기 실시

적 정 건 조

- 건조온도
 - 도정 및 수매용은 45~50°C 이하, 종자용은 40°C 이하로 건조
 - 건조공정의 열풍온도는 45°C 이하로 유지(곡물온도는 35°C 이하)
 - 건조기에서 나온 벼는 외기온도와 5°C 이내까지 방냉
- 건조과정 중 품질저하 형태 및 요인
 - 급격한 건조에 의한 동할미 발생
 - 건조지연으로 인한 고수분 벼의 변질
 - 과도한 과열에 의한 열손상립 발생
 - 과도한 건조에 의한 식미불량 및 도정 곤란

**들에서 작업할 때는 반드시 장갑, 장화, 긴 옷 등을 착용하여
뜨뜨가무시병 등 급성열성전염병을 예방합니다.**